

사이간덴지 절(西巖殿寺)의 역할

사이간덴지 절은 천년을 훨씬 넘는 옛날부터 아소 지역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소시에 있는 사이간덴지 절 본원 주지스님은 매일 아침 산을 올라 본존인 십일면 관음에 불경을 올립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아소산의 분화를 막는 것입니다. 아소산에서 분출되는 연기와 재는 논과 밭의 비옥함을 빼앗아 산 중턱에서 풀을 뜯는 소에게 해를 입히고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주지스님은 또한 관음에게 참배자의 소원도 함께 기원합니다. 소원 내용은 사찰 입구에 다발로 매달아 놓은 오색의 길쭉한 천에 적혀있습니다. 각각의 색은 특정한 소원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액막이, 노란색은 사업번창, 녹색은 합격기원, 보라색은 질환쾌유, 빨간색은 연애성취를 나타냅니다. 오색 끈은 본당 안 십일면 관음상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만지면 부처님과 손을 통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원하고 싶은 색의 오연줄을 연결하면 부처님께 직접 소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소시 사이간덴지 절 본원에 남아있는 독특한 의식 중 하나로 히와타리신지(불길 걷기)가 있습니다. 매년 봄에 절의 스님들은 나뭇가지와 '호마목'이라는 기도가 적힌 평평한 나무조각을 태워, 그 잔불이 남아있는 수 미터의 길을 걸어서 건넌다.